

대학의 학과 통폐합과 계열화 추진을 위한 제언

박 원 / 인하대 영어교육과 교수

지나친 학과 세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 학과들을 통합할 때 학과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학과군으로 하거나, 계열별 또는 학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과거 한 때 잠시 계열화로 대학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의 폐단으로 부상된 점을 보완하고, 장기적 안목을 갖게 된다면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중복과 복잡성을 배제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교수의 강의 부담이 감소되고 강사 풀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협동연구, 공동연구,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넷째, 전공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전공선택이 쉬워진다. 다섯째, 실험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지난 10여 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학과를 세분하여 증과를 해왔다. 마치 백화점의 비슷한 점포들이 많이 나열된 식으로 유사학과가 개설된 것이다. 현재 전국 131개 4년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수는 557개이며, 명칭만으로는 1,9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학문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다. 전체 학과를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 231개, 인문계 96개, 사회계·예체능계 77개, 사범계 53개 그리고 의학계 23개 순이다. 그 중에서 자연계가 41.5%로 가장 많은 학과로 세분되어 있다.

학과 세분에 관한 좀 더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선진 외국의 경우 전기공학 분야는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3~4개의 학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통신공학과, 통신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통신정보공학과, 전파공학과라는 15개 유사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기계공학과와 경우도 또 하나의 예이다. 즉,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동력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생산자동공학

과, 동력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제어기계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등 15개 유사학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서구 대다수 대학의 학과가 보통 40~50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약 560종은 그 세분화가 서구의 10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커녕 학과별 폐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1988년부터 대학 정원 조정 지침에 유사학과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그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으나, 그 첫번째 95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결과, 11개 대학에서 45개 학과를 21개 학과로 통합하는 데 그쳤다. 그 뒤 교육부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전국 대학의 신입생을 학과별로 모집할 대학의 수가 142개교, 학부별 모집 대학의 수가 4개교, 학과군별 모집 대학의 수가 13개교, 계열별 모집 대학의 수가 8개교로 집계되어 있다. 그 후 교육부 장관은 방송 대답에서, “95년 대학 조정에 따라 23개 대학의 174개 학과가 69개 학과로 통폐합될 예정”이라며, “학과 통폐합을

실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과 통폐합의 장애 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과 세분화가 열악한 대학 재정에 따른 등록금 수입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그 후속으로 발생한 학생,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의 불필요한 학과 이기주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게다가 대학 관련 법령과 행정적 학과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자율적인 통합 및 계열화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학문적 바탕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학사과정 통합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는 교과과정의 중복 편성과 학과 영역별 폐쇄 운영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제약은 물론 졸업생들의 진로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와 같이 지나친 학과 세분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등교육 투자의 비효율과 왜곡된 고급인력 양성구조를 안고 있다. 비계열화된 학과 위주 체제에서 오는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전공교육의 부족

학사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폭넓은 기초 전공교육이 학과 세분화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는 깊은 지식보다는 넓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무시되기 쉽다. 세분된 학과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폭을 제약하여 편협된 전공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② 학과 선택의 혼란

현 제도에서는 대학 입시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다.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들이 세분화된 전공을 택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취향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적당히 학과를 선택하여, 자기 취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이 생긴다.

③ 양 위주의 교육

지나친 학과 세분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학생수와 교수들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존 학과의 증원보다는 신설 학과의 증설이라는 조건이 교육부 대학 설치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소수의 정예 분자보다는 학과의 수가 많은 것으로 대학의 크기와 위상을 재려는 풍토를 기른다.

④ 교수 활용의 비효율성

학과간의 뚜렷한 선을 긋고 보니, 교수 영역의 교수로 교수의 강의가 자기 학과에만 치우치게 되어 교수 활용의 비효율성이 결여된다. 전공 영역의 교수로 인하여 학과간에 청강이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교수의 강의 부담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교수 충원이 제대로 된 학과에서는 교수가 맡을 과목이 부족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⑤ 교구 및 시설 사용의

마찰

엄격한 학과간의 구분은 교육 시설이나 실험실습기의 공동 운영이 어렵게 된다. 자기 자신의 시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학과의 사용을 쉽게 용인하지도 않게 된다. 동시에 유사학과마다 같은 교육 기기를 구입하는 낭비가 있다. 따라서 교육 기기의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운영상의 마찰이 있게 된다.

⑥ 교과목 설강의 중복

학과의 세분화는 새로운 교과목의 명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새로운 명칭을 가

진 학과의 수업 내용은 기존의 학과 내용과 유사하다. 즉, 교육 내용은 같은데 과목 명칭이 유사한 교과목이 설강되어 교과과정의 중복 편성을 초래한다.

⑦ 졸업생의 취업 제한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모집의 요강에 의하면, 응모 자격이 학과 기준으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석·박사 과정의 전공 수준으로 세분화된 학과 이수자는 산업현장의 수요가 극히 적다. 그리고 학과가 세분되면 학생들이 졸업후 사회 진출에 많이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구직난을 가일층 야기시킨다.

3. 개선방안

지나친 학과 세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 학과들을 통합할 때 학과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학과군으로 하거나, 계열별 또는 학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현행의 학과(department) 체제를 group major나 school, faculty 또는 division 개념의 단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적 문제

학과 통합 및 계열화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법과 행정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학과당 교수수로 되어있는 교수 확보율 산출 기준을 교수 1인당 학생수로 바꾸고, 학과 단위에 기초한 모든 지원정책, 예를 들면 학과당으로 산출하는 실험실습 설비 기준도 전공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의 통합 운영과 학생의 전과 허용 등 대학별로 학사쇄신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② 교과과정의 문제

교과과정은 기초 공동 과목과 전문 과목으로 나눈다. 기초 공동 과목은 1학년부턴 3학년 1학기까지 부과한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전공 기초 과목을 포함시킨다. 전문 과목은 몇 개의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전공 과목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이 3년 동안 자기의 적성을 찾아 3학년 2학기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3학년 1학기까지 기초 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 분야의 과목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 과목만을 담당하던 교수도 기초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③ 합의점 도출 문제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공 분야의 세분화와 학문 세대간의 격차로 인해 학과 세분화가 되었을 경우, 이것을 다시 통합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더욱이 첨단 의 최신 학문 분야나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학과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과와의 통합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열화의 난제 중 하나는 해당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일이다. 이러한 합의점 도출은 어떤 강제적인 외적 요인보다는 자체적으로 대안적 입장에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계열화는 세분화가 가장 지나치게 되어 있는 학과부터 그리고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열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계열화의 사례
 인하대학교는 1992년 약 6개월에 걸쳐 전기공학과, 전

자공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등 4개 학과의 계열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 문제 토의 중에 전자계산공학과는 통합에서 빠지고, 나머지 3개 학과에서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통합되었을 때, 그 명칭을 전자·전기 계열, 전기·전자 계열, 전자·전기 학부 또는 전자·전기 공과대학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인하대의 항공공학과와 자동차공학과가 95학년도부터 항공자동차공학군으로 통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다.

서울대에서는 1991년부터 ‘학부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 및 계측공학과에서는 대학 본부에 자발적으로 학부의 설립을 요청하고, 1992년 신입생부터 3개 학과를 통합하여 학생을 모집하여 새로운 교과

과정 아래 현재 학사 운영이 진행중이다.

서울대와 한양대는 대학 계열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1995학년도 입시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 구분 (8군)

- 경제, 국제경제
- 수학, 계산통계
- 생물, 분자생물, 미생물
- 전기, 전자, 제어공학
-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
- 공업화학, 섬유, 고분자, 화학공학
- 금속, 무기재료
- 자연대 지질해양

<한양대> 구분 (6군)

- 경제학부
- 경영학부
- 기계, 정밀기계, 기계설계, 자동화공학군
(기계공학과, 기계설비공학, 정밀기계공학, 자동화공학과)

<표 1> 인하대학교 전기·전자 계열

학 과	교 수 수	학 부 학 생 수
전 기 공 학 과	9	120
전 자 공 학 과	10	110
전 자 재 료 공 학 과	7	100
합 계	26	330

- 전자, 전자통신, 전과공학군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전과공학과)
- 화학공학, 공업화학, 섬유세라믹공학군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 건축공학부(건축 유사학과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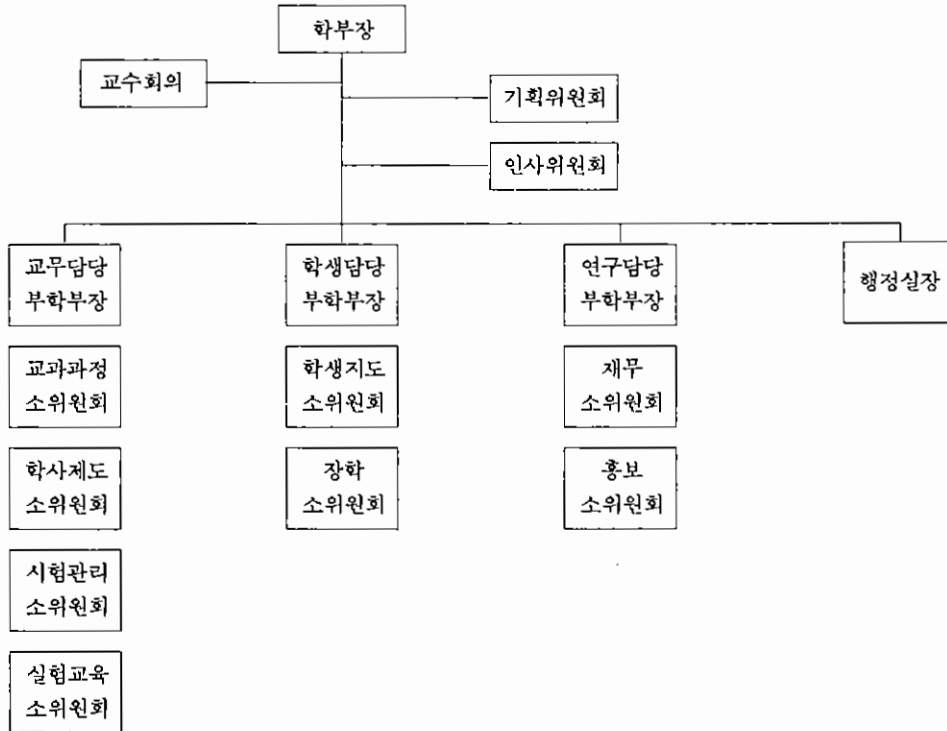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은 오는 98학년도부터 학과나 학군

구분 없이 '자연과학대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학사과정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학부제 시행의 첫 단계로 95학년도 신입생부터 4개의 기초과학 공통 과목을 반드시 수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양과정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표 2〉에 나타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의 조직은 학부 위주의 직제로 개편하려고 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인하대 교무처가 각 단과대학으로 1994년 9월 8일자로 발송한 학과 통합(계열화)에 대한 공문에 의하면, 각 단과대학에서는 계열화 제도 실시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합의안을 검토한 후, 계열화에 대한 합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1995학년도 1학기의 신입생을 계열 단위로 선발하기로 합의한 계열과 또 신입생을 학과 단위로 선발하되, 실제적인 공통 교과목 운영을 합의한 학과군의 신청을

〈표 2〉 서울대 전기공학부 조직



* 자료 : 한승업, "학과중심제도의 재고 : 학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대학교육』, 통권 71호(94. 9/10월호).

요망하고 있다.

4. 계열화의 기대 효과

대학의 학과들이 계열화로 통합될 때, 그 파급 효과가 대학의 큰 관심사이다. 과거 한 때 잠시 계열화로 대학 입학생을 모집한 바 있었으나, 그 제도는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 당시의 폐단으로 부상된 점들을 보완하고, 계열화의 효과에 관한 장기적 안목을 갖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① 행정의 간소화

계열화 체제는 학과의 세분으로 인한 행정의 중복과 복잡성을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직 교수 및 행정직원의 수를 줄일 수 있고, 행정 조직이 간소화될 수 있다. 학과라는 좁은 울타리로 인한 유사 학과간의 폐쇄성의 불이익이나 행정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② 강의 부담의 감소

학과별로 따로 설강하던 기초 과목들이 서로 통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강좌의 수가 줄어들어 교수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 또 공통 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교수의 인력 절약책인 이른바 강사 풀(instructor pool) 활용도 가능하다.

③ 연구 활동의 활성화

교수의 강의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강의가 충실하게 되고 교수의 연구 활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학과 통합 운영으로 인한 여유 인력을 연구 지원 인력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연구 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연관 교수의 상호 협동연구가 용이하고, 공동연구(joint projects)를 위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관련 학문의 통합 운영으로 학제간 연구를 강화할 수 있다.

④ 전공 선택 과목의 확대

계열화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좁은 학과 중심의 선택 과목에서 벗어나 유사학과의 과목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다. 다양한 전공 강의의 개설로 전공 과정의 충실한 심화 발전과 계열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실험실의 공동 이용

세분된 유사학과마다 실험실을 갖추는 것은 과도한 재정이나 공간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

결 방안은 실험실의 공동 이용이다. 계열화는 실험실의 공동 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동시에 주당 실험실 이용횟수를 증가시켜 실험실의 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다.

⑥ 전공 선택의 용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려는 학생이 세분화된 학과를 고르기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과 통합 운영은 대학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을 간명하게 해줄 수 있다. 계열화는 큰 학문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전공 선택이 쉬워진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시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 선택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의 제약을 줄여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부작용과 보완 사항

학과 통합으로 계열화가 이루어질 때,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① 학과 통합에 따른 교과 과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교수들간의 합의점 도출이 지연

되거나 인화 관계 도모에 손상이 갈 수 있다.

② 학과를 위주로 할 때보다 교육 기기 지원비의 축소와 교수 충원 감소 등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③ 세칭 인기 있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기 없는 과목의 폐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기초 과목의 공동 개설시 각 교수가 형평의 원칙 및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되어 개성 있고 소신 있는 강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⑤ 학과 단위의 학생 지도 개념이 없어지므로 학생과의 연대 의식이나 학생 지도상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부작용을 극소화하

고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측이 지원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과 통합 등 행정 조직 축소에 따른 실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

② 학내 공간 재배치시에 그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유사 강의 통합으로 인한 책임 시간 부족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경감시켜 준다.

④ 교과과정 개편을 계열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⑤ 교수 충원이나 조교 및 조수 배정시에 우선 고려한다.

⑥ 국책 대학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끝으로 대학의 계열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열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만부득이한 초기 장애(growing pains)와 이기적인 다툼(not in my backyard) 현상이 한국 대학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 원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필리핀 대학에서 영어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Thoughts of a Korean』, 『Feelings of a Korean』, 『Echoes of a Korean』 등이 있고, "한국의 영어교육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